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누르고 '월드소년단' 되다

빌보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
싸이 이어 두번째…그룹으로는 최초

방탄소년단이 K팝 아이돌 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Billboard Music Awards)에서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21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2017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았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가 상을 받은 것은 2013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톱 스트리밍 송' 비디오 부문을 수상한 이후 두 번 째다.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이 첫 수상이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스, 아리아나 그란데, 션 멘데스 등 세계적인 팝스타와 함께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 올라 상을 거머쥐었다. 이 부문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앨범 및 디지털 노래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공연 및 소셜 참여 지수 등 데이터와 지난 1일부터 진행된 글로벌 팬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011년 처음 생긴 이래 수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무대에서 발표하고 시상했다. 지난 6년간 저스틴 비버가 내리 수상한 부문이기도 하다.

미국 배우 로건 폴과 바이올리니스트 린지 스털링으로부터 트로피를 받은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는 "우리의 친구 아미(팬클럽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은 우리를 빛내주고 사랑해주는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의 덕입니다"라고 영어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더 멋진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고 한국어로 덧붙였다. 이들이 수상자로 호명되자 객석에서는 환호가 나왔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이들이 화면에 잡혔다.

멤버들은 트위터에 "꿈이 이뤄졌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올리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수상은 하루 아침에 일군 성과가 아니다. 이들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2015년 12월 '화양연화 파트.2'를 시작으로 지난 3월 '유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까지 4개 앨범을 연속 진입시키며 K팝 사상 첫 기록을 냈다.

이날 시상식 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트위터로 생중계한 '마젠타 카펫 라이브'의 스페셜 쇼에 초청 가수 중 유일하게 출연하기도 했다. 이들은 배우 로라 마라노에게 히트곡 '불타오르네'의 안무를 직접 가르쳐줬고 특히 멤버 제이홉은 가장 어려운 안무 파트를 실제 퍼포먼스를 하듯 선보여 현장에서 박수를 받았다.

로라 마라노는 개인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은 정말 멋지고 매너 좋은 밴드였다"며 "덜렁거리는 내가 춤을 잘 못 추는데도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줬다"는 후기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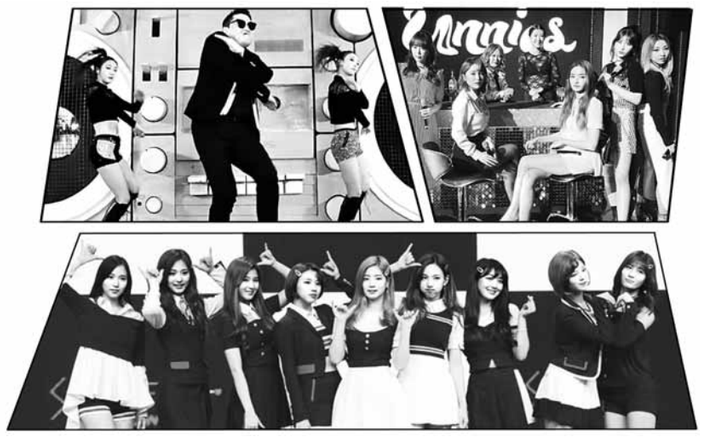
또 방탄소년단은 시상식 현장에서 팝스타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미국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 듀오 체인스모커스와 시상식 리허설 중 만나 '인증샷'을 찍고서 음악 교류를 위한 논의를 했다. 체인스모커는 트위터에 "여름에 만나자"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멤버들은 팝스타 할시와 시상식 현장에서 찍은 인증샷을 트위터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의 주인공은 캐나다 출신 래퍼 드레이크였다. 드레이크는 '톱 빌보드 200 아티스트', '톱 핫100 아티스트', '톱 남성 아티스트', '톱 랩 아티스트' 등 13관왕을 차지해 2012년 아델의 12관왕 기록을 깼다.

비욘세는 '톱 여성 아티스트', '톱 R&B 아티스트', '톱 투어링 아티스트' 등 5관왕을 차지했다. 임신 중인 비욘세는 이날 불참했다. 올해의 신인인 '톱 뉴 아티스트'상은 영국 출신 제인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차트 1위 탈환하라"

싸이·언니쓰·트와이스 등 차트 전쟁

대형 가수들이 쏟아졌지만 절대 강자가 없다.

4월 아이유와 혁오, 수란이 차트 정상을 놓고 경쟁하더니 5월에는 싸이와 언니쓰, 트와이스가 며칠 새 1위를 바통 터치했다. '장미 대선'이 끝난 후 잇달아 컴백한 '음원 강자'들의 경쟁은 1위를 뺏고 뺏기는 혼전 양상이다.

지난 10일 나온 싸이의 8집 타이틀곡 '아이 러브 잇'은 8개 차트 정상을 휩쓸며 차트 장악을 시작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틀 뒤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출연진이 결성한 프로젝트 걸그룹 언니쓰의 '맞지?'에 자리를 내줬다.

이어 언니쓰는 3일 뒤 트와이스의 신곡 '시그널'에 발목이 잡혔다.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를 시작으로 '낙낙'까지 네곡을 연속 히트시켜 정상 등극이 예견됐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차트에 진입한 트와이스마저 정상을 오래 유지하진 못했다. 싸이와 언니쓰의 곡이 다시 치고 올라왔고, 19일 신곡 '혼자'를 낸 어반자카파까지 1위 경쟁에 끼어들었다.

22일 오전 9시 기준 8개 차트에서는 싸이, 트와이스, 어반자카파를 비롯해 볼빨간사춘기가 부른 MBC TV 드라마 '군주-가면의 주인' OST 곡인 '처음부터 너와 나'가 고루 정상을 나눠가졌다.

차트가 춘추전국 시대가 된 것은 다양한 연령대의 음악 팬이 기대하는 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컴백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곡 공개와 함께 실시간 차트에서 진입 순위를 선점했다.

반면 어떤 곡도 차트를 압도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4월부터 이달까지 정상을 찍은 음원들이 걸그룹의 댄스곡부터 밴드 음악, 싱어송라이터 그룹의 발라드까지 장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최상위권의 변화가 빠른 반면, 각종 차트 15~40위권 대에는 오히려 '붙박이 노래'들이 많아졌다.

22일 오전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만 살펴봐도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볼빨간사춘기의 '좋다고 말해'와 '우주를 줄게',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블랙핑크의 '불장난', 정승환의 '너였다면',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등 수개월 전 발표된 곡들이 여러곡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10 MBC 뉴스특보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20 기분 좋은 날	10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감성툰 고맙습니다(재)	00 월화드라마 〈쌤, 마이웨이〉 (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TV쇼 진품명품(재)	00 이웃집 찰스(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5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인공지능 대 인간 세기의 대국 〈알파고 대 커제〉	15 텔레몬스터 25 똑?똑! 키즈스쿨 55 응까 소나타 2	00 뉴스브리핑
3	10 특집 2부작 독서공감! 교육 4.0 시대에 대비하라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MBC 뉴스M 50 MBC 스포츠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잉글랜드 : 기니〉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베네수엘라 : 바누아투〉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7	00 KBS 뉴스 10 리얼토크, 날	40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별예선 2차전 〈대한민국 : 아르헨티나〉	15 일일연속극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0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대한민국 : 아르헨티나〉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55 일일특별기획드라마 〈황금주머니〉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기획 창 〈아가야 미안해〉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쌤, 마이웨이〉	00 월화드라마 〈파수꾼〉	00 월화드라마 〈귓속말〉
11	00 KBS 뉴스라인 40 천상의 컬렉션	10 앙코르 드라마 스페셜 〈전설의 셔틀〉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5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VJ 특공대(재)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시장기행 인도 물리크가트 꽃시장〉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꼬마버스 타요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성난 물고기(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낙지차돌박이 볶음과 연두부 미소 된장국〉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3:40 장수의 비밀(재)
14:30 레이디버그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시계마을 티키톡!
16:1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30 두다다쿵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20:50 세계테마기행 〈세상의 모든 시간 터키 2부 케슈케크와 나자르 본주〉
21:30 한국기행 〈금쪽같은 내 사랑 2부 당신 없이 못 살아〉
21:50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나를 잊지 마오-치매병동 외〉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홍반장〉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3일(음 4월 28일 庚戌)

子 48년생 고민만 하지 말고 말로 해야 알아듣느니라. 60년생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72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84년생 허울 좋은 껍데기 앞에서 한없이 회의를 느끼게 될 수도 있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29, 77

丑 49년생 좀처럼 오기 힘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인바 꼭 잡도록 하라. 61년생 친화력이 곧 기반의 요체가 될 것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73년생 자신이 발언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85년생 볼수록 가관이로다. 행운의 숫자 : 93, 44

寅 50년생 반드시 맑은 정신에서 행해야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62년생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절정에 이르리라. 74년생 소신을 바탕으로 한 주관이 절실한 때이다. 86년생 여과해서 듣고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67, 91

卯 51년생 급하게 뛰어다녀야 할 일이 많다. 63년생 예견된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75년생 실행하자니 번거롭고 가만히 있자니 체면이 의식되어 판단의 오류가 있기 쉽다. 87년생 실질적인 내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98, 58

辰 52년생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가급적 빨리 정산할수록 이익이다. 64년생 진솔함이 생산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76년생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88년생 거의 완벽한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11, 25

巳 53년생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허탈해 할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65년생 파격적으로 변화한 위상에 당황할 수도 있다. 77년생 내적인 면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할 때다. 89년생 잘 활용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6, 51

午 42년생 고민이 해소된다. 54년생 지나치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다. 66년생 실리에 치중해야겠다. 78년생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90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19

未 43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전화위복의 상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55년생 값어치 있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67년생 상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79년생 득이 있다. 91년생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82, 66

申 44년생 충동적인 조처라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56년생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68년생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80년생 미리 연락을 취하고, 행선지에서는 아는 길도 물어 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8, 85

酉 45년생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57년생 행동력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69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하였던 바가 드디어 나타날 것이로다. 81년생 고역이 따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71

戌 46년생 숙의하는 과정에서 길한 결론에 이르리라. 58년생 활용하기에 편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70년생 크게 한숨 쉴 일이 생긴다. 82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유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24

亥 47년생 작심했다면 실행하라. 59년생 순간의 오판을 주의하라. 71년생 자신의 진짜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83년생 다자 관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고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8, 3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